

“탐라순력도 속 해녀복 1917년까지 착용”

민속학자 고헌민씨 논문 '병담범주' 도구·옷 분석 빗장을 들고 우미망사리 1917년 발간 전남사진지 원피스 해녀복 처음 등장

을 담은 화첩이다. 이형상이 순력하는 동안에 화공(畫工) 김남길이가 그린 41점의 그림으로 구성됐다.

그 가운데 '병담범주(屏潭泛舟)'에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용연에서 뱃놀이를 하는 장면을 묘사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제주 해녀가 나오는 최초의 그림이다.

고광민 연구위원은 '병담범주'의 해녀들은 이원조의 '탐라록'에 미루어 볼 때 제주목사와 그 일행들이 부정기적으로 취병담에서 뱃놀이를 할 때 점심상에 올릴 전복 등을 따고 있었을 것으로 봤다.

따라서 이들 해녀는 전복을 따는 '뱃잡녀'들이고 그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전복을 따는 도구인 '뱃장'이라고 했다.

그림 속 해녀의 '망사리'는 그물코 직경이 가장 짧은 '우미망사리'



제주 해녀(원안)가 처음 등장하는 그림인 '탐라순력도'의 '병담범주'.

라고 덧붙였다. 제주 해녀들은 '우미망사리'를 '데약'에 달아매 전복, 소라 등을 낚는다.

당시 해녀들은 가슴이 드러나는

아랫도리 해녀복을 입고 있었다. 고 연구위원은 이같은 해녀복을 1917년 무렵까지 입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1917년에 출간된 '전남사진지(全南寫眞誌)'에 처음으로 가슴을 가리는 일명 '원피스 해녀복'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고 연구위원은 “아랫도리 해녀복이 일상의 속옷 겸용이라면, 원피스 해녀복은 일상의 속옷이 아닌 해녀들이 잠수할 때만 입는 본격적인 해녀복”으로 구분했다.

원피스 해녀복은 훗날 고구 해녀복으로 바뀐다. 그 시기는 1971년쯤이다. 이와관련 고 연구위원은 1971년 3월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에서 벌어진 고구 해녀복 착용에 대한 형평성 논쟁이 담긴 회의록 일부를 공개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재단 성희룡 최종 중징계... “성평등문화 개선”

4차 인사위서 정직 1개월 외부 컨설팅 매뉴얼 정비 인사위 관련 인력 등 보강

속 조치로 성희룡 매뉴얼 선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징계 결정은 지난 18일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당초 정직 1개월 중징계에서 가해자 재심 청구에 따라 감봉 3개월 경징계로 감경되며 논란이 확산되자 이사장이 재심을 요청해 소집된 4차 인사위원회였다.

이날 인사위는 가해자의 사과 확

인서 제출을 근거로 들었던 감경의 적절성, 성희룡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필요성, 감경과 관련한 인사 규정 위배 소지 등 이사장의 재심 청구 배경을 토대로 심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맨처음 나왔던 처벌 수위와 동일하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이 의결됐다.

문예재단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외부 컨설팅을 통해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성희룡 매뉴얼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뉴얼 정비안에는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고충처리 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명확한 역할 구분, 신규 인사위원 위촉 시 성희룡·성범죄 관련 전문 인력 보강 등이 포함됐다.

문예재단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외

부 컨설팅을 통해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성희룡 매뉴얼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뉴얼 정비안에는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고충처리 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명확한 역할 구분, 신규 인사위원 위촉 시 성희룡·성범죄 관련 전문 인력 보강 등이 포함됐다.

문예재단 관계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주도 성평등정책관 등 관련 전문 기관과 부서의 자문을 구하며 매뉴얼 선진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문화가 쏘다

이천희 주연 '애월' 시사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이달 25일 오후 7시 CGV 제주노형 6관에서 제주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된 영화 '애월' 시사회를 연다.

'애월'은 연출·촬영·제작팀으로 20년간 영화계에 몸담아온 박철우 감독의 데뷔작으로 이천희, 김혜나가 주연을 맡았다. 가까운 사람을 잃은 이들이 애월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 아픔을 극복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치유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가 신청은 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문의 064)735-0627.

제주대중음악협회 워크숍

지난 3월 출범한 제주대중음악협회 사운드브릿지가 제주 대중음악의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29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카페 드 벨로(제주시 연북로 188)에서 진행되는 3차 워크숍에는 이다 김명수 대표가 '공연 기획'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앞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우스카니발 강경환 대표의 '밴드의 이해', 제주대중음악협회 오영철 회원의 '음향의 이해' 주제 강연이 잇따랐다. 대중음악에 관심있는 학생 등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발레 '호두까기 인형' 상영

국립제주박물관은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했던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영상으로 선보인다.

이번 상영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의전당에서 주최하는 공연 중에서 주요 작품을 창작 영상으로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들어졌다. 일정은 이달 25일 오후 3시와 6시 두 차례 국립제주박물관 강당. 좌석 280석에 한해 상영 시작 1시간 전부터 박물관 강당 앞에서 선착순 무료 입장권을 배부한다. 문의 064)720-8035.

우당도서관 독서문화 포럼

제주시 우당도서관은 제주독서문화대전 사업으로 이달 27일 오후 2시 도서관 소강당에서 '지속가능한 독서 문화 발전 방향' 주제의 '제주 독서문화 포럼'을 연다.

이날 포럼에서는 남미영 한국독서교육개발원장의 '4차산업혁명시대의 책읽기와 도서관' 기조강연과 차미경 이화여대 교수의 '21세기 지역공동체와 공공도서관의 역할',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의 '책으로 지역사회가 변한다' 주제 발표가 잇따른다. 도서관 독서 동아리가 참여하는 종합 토론도 마련된다. 문의 064)728-1503.

이번주(9월 23일~29일)

무대 & 미술

영화음악에 가을날 인생 이야기

제주팝스 소극장 콘서트 사계절 공연 세번째 '가을'

청중과 호흡하는 무대로 사계절 소극장 콘서트를 이어오고 있는 제주팝스오케스트라가 이번엔 가을 이야기를 빛낸다. '유니크 시즌'이란 이름 아래 이 계절을 인생의 결실을 맺는 중·장년에 빛대 추억의 영화음악을 들려준다. 이들의 마지막 '겨울' 콘서트는 12월 말 예정되어 있다.

<공연>

▶제주성악동호회 보체 끼아라 음악회=9월 23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5351-9124.

▶피아노듀오 베리오자 리사이틀=9월 24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010-4634-5221.

▶제주햇볕회 사모합창단 연주회=9월 24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9840-0843.

▶연극 '푸른 봄'=9월 24-25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7591-2425.

▶제주민요보존회 '제주민요-섬을 울리는 소리'=9월 26일 오후 4시 국립제주박물관. 720-8035.

▶함덕고 음악과 연주회=9월 26일 오후 6시30분 문예회관. 010-9505-1812.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연주회=9월 26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760-2481.

▶제주팝스오케스트라 콘서트=9월 27일 오후 7시30분 소극장 채플린. 010-9839-3717.

▶양상블 나인 연주회=9월 27일 오후 7시30분 아라뮤즈홀. 754-4697.

▶숲속 힐링 콘서트=9월 28일 오후 2시 서귀포 치유의 숲. 760-3067.

▶오페라 '카르멘'=9월 27일 오후 7시30분, 28일 오후 4시 제주아트센터. 728-1509.

▶뮤지컬 '딩동댕 동화나라 콘서트-안녕 친구야'=9월 28일 오후 4시 국립제주박물관. 720-8035.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통통 클래식=9월 28일 오후 7시 서귀포예술의전당. 760-3365.

▶개그 뮤지컬 '오늘을 기억



사계절을 주제로 소극장 콘서트를 펼치는 제주팝스오케스트라.

해'=9월 28일 오후 5시 김경문화회관. 760-3792.

▶퍼포먼스단 몸짓 '비바리 연가'=9월 28-29일 오후 5시 산지천 북수구 광장. 010-9944-6703.

▶제주 전국 국악대전=국악협회 제주도지회 9월 28-29일 문예회관. 010-9981-9902.

<전시>

▶오의상 서예전=9월 25일까지 소암기념관. 760-3511.

▶반지옥 사진전=9월 26일까지 이종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010-2771-9911.

▶제주바람=9월 26-10월 1일 서귀포예술의전당. 010-6844-3350.

▶이승현 개인전=9월 27일까지 갤러리돌하나. 728-1530.

▶남원리 해녀 사진전=제주영상동인 9월 27일까지 해녀박물관. 782-9898.

▶제45회 제주도 사진대전=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 9월 28-10월 3일 문예회관. 710-7633.

▶캘리그래피오일 제주멋글씨회 회원전=9월 28-10월 3일 문예회관. 710-7633.

▶목랑 문인화전=9월 28-10월 3일 문예회관. 710-7633.

▶바다숲-제주 옛바다와 산호=9월 28일까지 제주웅기습미술관. 010-4408-9074.

▶탐라미술인협회 '할로 영상'=9월 29일까지 예술공간 이아. 800-9331.

▶임성호 사진전 '심연'=9월 29일까지 문화공간 제주아트. 722-6914.

▶이정원 초대전=9월 30일까지 현인갤러리. 747-1500. 전선희기자

제27회 중문고등학교 총동문 한마음체육대회

일시 2019년 9월 29일(일) 10:00

장소 중문고등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주최 중문고등학교 총동문회
주관 중문고등학교 제26회 동창회
후원 중문고등학교, 총동문회역대회장협의회

연락처 | 회 장 송창식 010-3693-8058, 상임부회장 강충현 010-3696-0459
사무국장 변용남 010-2415-2198, 제26회 회장 고희준 010-7179-1938

중문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송창식